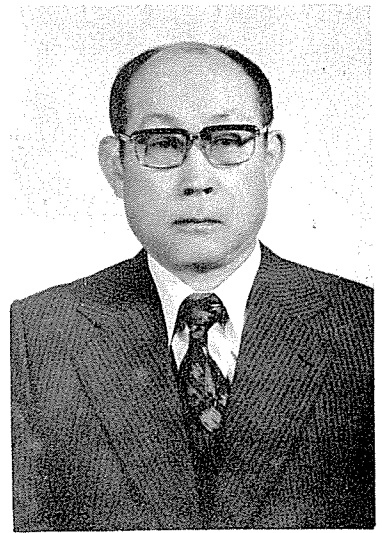


意志의 齒科人
崔 範 瑢 先生님



京畿道齒科醫師會와 仁川齒科醫師會의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는 意志의 齒科人 崔範瑢先生님은 1945年 9月 仁川齒科醫師會 創立멤버, 1948年 京畿道齒科醫師會 創立멤버로서 會務에 參與하면서 會에 끼친 功勞는 筆舌로 이루 헤아릴수가 없다.

道會 및 仁川會에서 總務理事만 18回, 仁川會長 6回, 道會長 2회를 合해 30餘年을 會를爲해 獻身해 왔다. 지금은 年老하시고 健康이 如意치 않아 조용히 開業에만 專念하고 계시지만, 散發的으로 施行하던 6.9行使를 組織化하여 對民無料診療, 無料相談을 通해 口腔啓蒙에 장졌으며, 月例會를 거들하는 동안 會員間에 親睦圖謀와 齒科醫師의 權益向上에 拔群의 努力을 傾注하였다.

鄭熙燮保社部長官賞, 大韓齒科醫師協會會長賞 2回, 仁川市長賞 등이 그 功勞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여기서 大齒事務局長을 歷任하시고 現在 齒協歷史編纂委顧問과 齒科機材商工協 常任顧問으로 있는 崔範瑢先生님으로부터 京畿道 및 仁川會의 成長課程을 知 悉하면서 意志로 이어온 崔範瑢先生님의 當時의 狀況을 暫時들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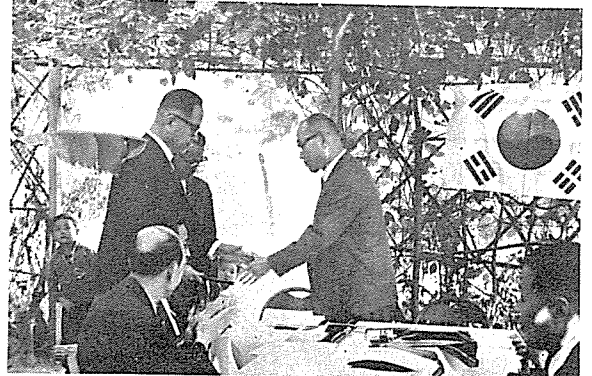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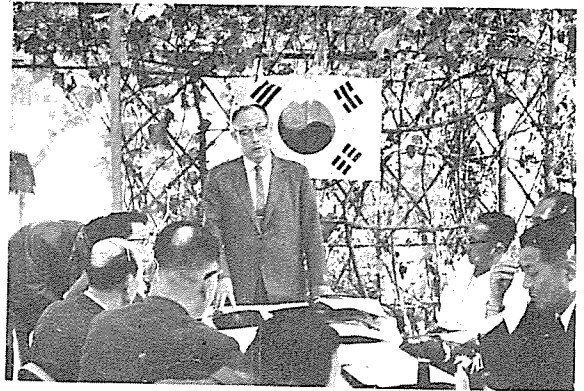
[京齒專在學時節의 崔先生님과 同期生(僧伽寺에서)]

東 盛 齒 科 技 工 房

代表 趙 煥 東

서울 종로구 낙원동 236

☎ 0474 ☎ 9712



오랫동안 京畿道 總務理事를 歷任하시면서 各種모임의 周旋과 뒷바라지에 東奔西走했다.

京畿道會長 當時 會員間의 友誼增進과 알찬 道會를 이 끌어가면서 醫權伸張에 많은 功績을 남겼다.

仁

一

齒科技工所

代表 金 益 洙

仁川市中區仁峴洞22(東仁川駅前)

電話 (2) 2757

[崔曉峯氏의 말]

감 사 장

崔曉峯先生은 8·15해방후 20여년간 京畿道齒科醫師會와 仁川市齒科醫師會의 창립과 육성을 위해 초창기의 어려움을 강인한 意志와 슬기로운 氣魄으로서 극복하면서 젊음을 불태워 오늘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본다. 지금은 老境에 들어 또한 좋지 못한 健康때문에 조용히 개업에 전념하고 있지만 齒科醫界의 山證人으로서 덕망과 신망은 높아가기만 한다.

6·25사변때 診療室과 家産을 燒失당하여 알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再建에 피할 暇를 홀리면서도, 한편 會務를 위한 誠實性을 잊지 않았으니 그 意志의 底力은 淸란할수 밖에 없었다.

10년 先輩인 林榮均회장이 작고한후 비로소 會長을 역임하였지만 林先生生存時는 總務로서 선배를 신기고 會務에 열중하였으며 후배들을 아끼고 起用하여 適材適所의 職責을 맡기기도 했다.

溫厚하고 겸손한 성격의 탓인지 몰라도 會務를 紀念촬영때는 반드시 뒤쪽으로 물러서고 一列일 경우는 중심에 서지 않았으며 會務집행에는 앞장서서 허다한 수고를 하면서도 그 名譽는 항상 남에게 돌려주었으니 어찌 仁慈한 君子의 人品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平素의 坦坦한 湖水와 같은 性品에 反比例하여 會務에 관한限 불순한 일이 있을때는 怒濤와도 같이 咆哮하듯이 說破한 일도 있었다는 것은 잊을수 없는 일이다. 그 한例로 1964년 6월 中순경에 面담을 통해 齒協 金용진 執行部당시 某副會長이 불만을 품고 辭退한 문제와 齒材禁輸 陳情문제로 紛糾가 빚어졌음을 痛탄하고 『도리체 所謂 査收委員會가 무엇인가. 전국 各市支支部를 총 망라한 委員會가 아니라 서울支支部 일부會員의 集團體에 不過하므로 우리는 中央會의 定款에 따라 中央회장이 召集하는 定期總會나 臨時總會가 아니면 代議員을 派遣할수 없다. 서울支支部長 自進辭退勸告문제가 있는데 이는 서울支支部自體에서 處理할 問題이며 懲戒대장자가 될만한者의 면목을 세워주기 위하여 齒協全任員도 自進사퇴해야 한다는 所謂 수습위원들의 思考方式은 不當하다. 서울支支部長이며 齒材社長인 李某氏는 同期同窓관계로 절친하지만 保社部에 自己가 생산하는 齒材種을 禁輸해 달라고 陳情하여 紛糾를 惹起시킨 責任을 容納할 수는 없다』고 大義名分과 公私에 대한 所信의 一端을 밝히 外柔內剛의 일면을 엿볼수 도 있었다.

興安齒材商社

代表 尹 正 權

서울特別市 中區 南大門路 5街 20-1

(청송빌딩 308호 · 지원다방 3층)

22-6213